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 태 미 · 최 인 력^{**}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Self-Esteem, Body Cathexis Between Multicultural and Korean Family Adolescents

Taemi Kim · In-Ryu Choi^{**}

Lecture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1. 4. 29. 접수; 2011. 6. 13. 수정; 2011. 6. 17.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self-esteem, body cathexis in multicultural familie adolescents.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pre-tests, and main survey conducted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The 236 participants came from 135 multicultural families and 101 Korean. Self-esteem, body cathexis, clothing behavior were examined through 5-point likert scale. 3 factors including clothing interest, social approval and clothing conformity were used as clothing behavi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by using SPS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showed higher self-esteem, body cathexis, than Korean family adolescent. Second, self-esteem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dy cathexis in both multi-cultural family and Korean family adolescent. Third,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body cathexi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lothing interest, social approval and clothing conformity. In Korean family adolescent, body cathexi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pproval and body cathexi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lothing conformity.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다문화가정 청소년), Self-esteem(자아존중감), Body cathexis(신체만족도), Clothing behavior(의복행동특성)

I. 서 론

세계화의 흐름으로 국가 간의 노동력 교류로 인한 국내외 인구의 이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계기가 되었으며,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은 결혼이주 여성의 대거 유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인종

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 이주민,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사회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990년에 인구 구성비 0.11%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06년에는 1.88%로 17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특히

Corresponding author ; In-Ryu Choi
Tel. +82-2-920-7197, Fax. +82-2-920-2075
E-mail : ichoi@sungshin.ac.kr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6년에는 전년도보다 25%가 상승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167,090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13.6%가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한 2006년 25,000명에서 2007년 44,000명, 2008년에는 58,000명으로 매년 그 수가 30~40%의 증가추세이다(행정안전부, 2009). 1990년대 초기의 이주한 다문화가정 2세들은 현재 10대로 성장하여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이들의 수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통한 발전 방법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이주 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노충래, 흥진주, 2006),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쟁점에 관한 연구(배은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교육을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활용한 연구(한건수, 2005),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김민정, 2008)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의 다문화가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교육, 문학, 사회복지측면의 연구들이다(최성환 외, 2009). 또한, 그동안 국내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이명희, 1999; 이선경, 정준교, 2003; 김지영, 김준호, 2006)와 국내거주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김순분, 2009; 유지현, 2009)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으나 한국의 다문화가정 2세들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났고 최근 학령기가 되는 시점이므로 아직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 행동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 변인들의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한국가정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그 특성과 유의적인 관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청소년

다문화주의란 명사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Martiniello, 2002). 즉,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 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으며(국토연구원, 2009) 현대의 한국 사회는 단일한 민족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통해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 존재하게 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다문화주의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적 현상은 정책적 방법 뿐 아니라 정서와 가치관에 따른 실질적 생활양식에 대한 다방면의 이해를 통해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결혼이민자가 정의 자녀와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며, 그에 대한 연령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2009년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10만(103,484)명이 넘으며, 그 중 6세미만이 59.6%(61,700명)로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4배에 달하여 매년 3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는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자녀현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교과부 '08. 6월)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18,778명으로 '07년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각 학교급별 비율은 초 84.2%, 중 11.7%, 고 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지역별 비율은 경기(20.7%),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이며, 국제결혼가정의 부모국적별 비율은 일본

<표 1>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구 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103,484명	61,700명	27,568명	7,785명	6,431명
비 율	100%	59.6%	26.7%	7.5%	6.2%

행정안전부, 2009. 5.

(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이다. 특히,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90.2%(16,037명)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402명으로 2007년 대비 15.9%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 비율은 초 70.0%, 중 22.4%, 고 7.6%이다. 지역별비율은 서울(38.2%),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이고,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부모국적별 비율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이며, 재학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현황파악이 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상태인 학교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메시지와 언론사, 기업의 다문화 관련 캠페인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금명자 외, 2006)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백미숙, 2009; 김지혜, 2009)가 이루어지고, 서울시 교육청은 다문화 지정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연구와 운영보고를 하고 있다. 김민정(2008)은 이주노동자아버지와 한국인어머니로 이루어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성장을 외모적인 특성을 가지는 ‘흔혈’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외모와 젠더에 대해 설명하였고, 임종옥(2010)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종교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심우엽(2009)은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이유

를 다문화 아동과 한국가정 아동의 민족정체성 차원에서 심층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고취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갖는 문화적 차이와 외모적 특징에 대한 수용태도에 의해 자아정체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능력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판단하고 존경하는 것(Rosenberg, 1979)을 뜻하는 자아개념의 평가적인 구성요소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강혜원, 1999)이 된다.

강경아 외(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 정도가 높아 목표추구, 사랑체험, 자기필요존재인식, 자기유한성 인식, 만족감, 관계경험, 긍정적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와 김현지, 이영환(1999)의 정서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생의 의미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이 학습과 참여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체적 자아란 신체로서의 자아 또는 지각된 자아의 물질적 특징을 의미(강혜원, 1999)하며,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민족감의 정

<표 2>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민가정 자녀의 각 학교급별 인원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인원(명)	증감(%)
2005	국제결혼가정	5,332		583		206		6,121
	이주민가정	995		352		227		1,574
2006	국제결혼가정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이주민가정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2007	국제결혼가정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이주민가정	755	△32.3	391	△81.9	63	△3.3	1,209
2008	국제결혼가정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이주민가정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보건복지부, 2008. 4.1

도로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신체의 모양과 구조, 기능을 포함한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Cash, 1990)한다.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며 의식하게 만들며, 이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체이미지, 자아개념, 의복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Thompson & Heinberg, 1999).

외모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변모하나, 현대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일컬을 만큼 외모에 많은 집중이 되어 있어 그 관심 또한 매우 크다. 신체적인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성별, 인종, 나이,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이인자 외, 2001)하고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심리적 믿음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신체만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효능감이 높을 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이현옥, 구양숙, 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육영숙(2008)은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발표하였으며, 김아닐리아 외(2006)는 남녀 프리틴 세대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은희(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 학생 5~6학년의 주관적 체형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장선철, 송미현(2004)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김민정 외(2004)는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과 신체발달이 이루어지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신체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선호, 그리고 착용습관 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Horn & Gurel, 1981). 강경자, 서영숙(1992)은 Maslow의 기본욕구에서 의복의 동조에 미치는 욕구는 자기존중, 소속, 안전요구, 자아실현, 미의 순이며,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는 자기존중, 자아실현, 미인지, 소속의 순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집단규범의 옷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정미실, 강혜원(1991)은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의 동조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보제공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정보에 더욱 많이 동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험지각의 차원이 브랜드의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대근, 김세희(2010)는 소비자 동조성에서 패션성향에 대한 경로에서 규범적 동조는 패션성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보적 동조만이 영향을 주며, 전대근, 이은영(2006)의 일반적 동조성향과 패션동조 행동 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는 의복의 동조가 단순히 친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와 선호라기보다는 정보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은 의복관심과 심리적 의존성, 의복과 시성이 크게 나타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송경자, 이미숙, 2009). 전용민, 이명희(2005)는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와 신체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태도의 요인을 연예인 의복동조, 심미성, 유행으로 보았으며 물질주의가 의복태도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의복행동을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심리적의 존성, 동조성의 4가지 요인으로 보았으며,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변인의 설명력은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해서 가장 높았고, 동조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맹리선 외(2009)는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욕구를 동조, 개성, 인정, 이미지 관리의 4개 요인으로 보았으며, 청소년들의 이미지 관리와 또래집단이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 수록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의 관심과 선호, 습관에 따라 나타나는 의복행동은 개인의 내면적 가치관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관인 외부적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서의 소속과 역할을 수행하는

행동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복은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신체 이미지는 사회적 자아개념의 일부이자 외모와 근접한 의미로 의복은 신체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외모적 특징과 부모의 문화적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의 특성의 차이를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한국가정의 청소년과 비교분석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2010년 4월 1일에서 4월 15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설문문항의 이해도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수정 보완하여 2차 설문작성에 이용하였다. 2차조사는 2010년 6월 15일에서 8월 15일에 걸쳐 서울과 충남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포하여, 14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된 12부를 제외한 총 135부가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과 비교분석하기 위한 한국가정 청소년의 설문지는 총 130부를 배포하여, 117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된 16부를 제외한 총 101부가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Varimax)과 Cronbach's α 계수의 신뢰도,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언어적인 특성에 의해 설문지법과 함께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의류전문가 4인과 뷰티전문가 2인, 다문화학생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2인, 재한 외국학교 교사 2인, 다문화청소년 연구원 1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담당자 2인, 한국어 교사 1인, 글로벌 센터장과의 개별미팅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자아존중감에 관한 9문항, 신체만족도에 관한 6문항과 의복행동에 관한 11문항의 총 26문항을 5단계 리커트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되었다.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하여 로젠버그(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인 Self-Esteem Scale(RSES)을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2)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김희화, 김경연(1996)과 최수빈, 조우현(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3) 의복행동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의복행동 요인에 대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의복행동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60%를 설명할 수 있었다. 각 하위요인의 명칭과 문항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요인 1의 설명력은 26.70%, 신뢰도계수(Cronbach's α 계수)는 0.81로 나타났으며, 의복관심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의 설명력은 19.36%,

<표 3> 의복행동 측정도구

요인	문 항	요인 부하량	고유 값	설명 분산 (%)	신뢰 도
요인 1- 의복관심	여러 가지 옷이 이것저것 잘 어울리는지 입어본다.	0.75	2.94	26.70	0.81
	TV나 영화를 볼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본다.	0.76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은 내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0.72			
	친구가 옷을 사려갈 때 같이 가서 어떤 옷이 있나 살펴본다.	0.71			
	부모님이 싫어해도 유행하는 옷을 입겠다.	0.70			
요인 2- 사회적 승인성	새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 기분이 많이 좋다	0.78	2.13	19.36	0.72
	눈에 뛸 수 있는 색의 옷을 좋아한다	0.77			
	옷을 잘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주기를 바란다.	0.63			
	단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옷을 활용한다	0.54			
요인 3- 의복동조	만약 모임에서 친구들과 다른 옷을 입으면 왕따라고 느낄 것이다	0.87	1.53	13.94	0.64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다.	0.80			

신뢰도계수는 0.72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승인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의 설명력은 13.94%, 신뢰도계수는 0.64로 나타났으며, 의복동조라 명명하였다.

4)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부모의 모국, 용돈수준, 학급내 성적등수, 사회계층에 관한 8문항으로,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선다형 및 기술형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IV. 연구결과

1.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는 135명이고 한국가정의 청소년 조사대상자는 101명으로 연구대상자는 총 246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연구대상의 연령은 10~12세의 초등학생이 47.4%, 14~16세의

중학생이 52.5%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41.5%, 여자가 58.5%이었다. 사회계층은 상층이 4.4%, 중층이 80%, 하층이 15.6%이었다. 한달 용돈수준은 2만원 미만 58.5%, 2~5만원 미만 24.4%, 5~10만원 미만 7.4%, 10~15만원 미만 4.4%, 15만원 이상 5.2%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1~10등) 64.4%, 중(11~20등)이 27.4%, 하(21~30등)가 8.1%로 나타났다. 한국가정의 청소년 연구대상의 연령은 10~13세의 초등학생이 43.64%, 14~16세의 중학생이 56.4%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43.6%, 여자가 56.4%이었다. 사회계층은 상층이 9.9%, 중층이 73.3%, 하층이 16.8%이었다. 한달 용돈수준은 2만원 미만 51.5%, 2~5만원 미만이 36.6%, 5~10만원 미만이 10.9%, 15만원 이상 1.0%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1~10등)이 31.7%, 중(11~20등)이 48.5%, 하(21등 이하)가 19.8%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차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3.36)이 한국가정 청소년의 평균(3.08)보다 높게 나와 두 집단 간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와 같은 RSES측정도구를 이용한 충남지역 다문화가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다문화 가정	연령	10~13세	64(47.4)	용돈 수준	2만원 미만	79(58.5)
		14~16세	71(52.5)		2~5만원 미만	33(24.4)
		합계	135(100)		5~10만원 미만	10(7.4)
	성별	남	56(41.5)		10~15만원 미만	6(4.4)
		여	79(58.5)		15만원 이상	7(5.2)
		합계	135(100)		합계	135(100)
	주관적 사회계층	상	6(4.4)	성적 등수	상(1~10등)	87(64.4)
		중	108(80.0)		중(11~20등)	37(27.4)
		하	21(15.6)		하(21~30등)	12(8.1)
		합계	135(100)		합계	135(100)
한국 가정	연령	10~13세	44(43.6)	용돈 수준	2만원 미만	52(51.5)
		14~16세	57(56.4)		2~5만원 미만	37(36.6)
		합계	101(100)		5~10만원 미만	11(10.9)
	성별	남	44(43.6)		10~15만원 미만	-
		여	57(56.4)		15만원 이상	1(1.0)
		합계	101(100)		합계	101(100)
	주관적 사회계층	상	10(9.9)	성적 등수	상(1~10등)	32(31.7)
		중	74(73.3)		중(11~20등)	49(48.5)
		하	17(16.8)		하(21등이하)	20(19.8)
		합계	101(100)		합계	101(100)

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백미숙, 2009)의 평균(2.87)보다도 높은 결과이다. 1년의 시간차이를 둔 조사에서 같은 지역을 포함한 백미숙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서울지역 조사대상자들이 다문화 교육연구(시범)학교의 학생들로 학교에서 다양한 다문화 교육지원과 멘토링 및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고취시킨 결과로 보여지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김현지, 이영환(1999)의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평균(3.03)이 한국가정 청소년의 평균(2.89)보다 높게 나와 두 집단 간의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p<0.05$)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지혜(2009)의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 외모자아 평균(4.75)이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외모자아 평균(4.38)보다 더 높게 나온 결과

<표 5>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구분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가정	135	3.36	0.59	0.985***	0.000
	101	3.08	0.57		
	236	3.24	0.60		

*** $p<.001$.

<표 6>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구분	신체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다문화가정	135	3.03	0.82	0.769*	0.018
한국가정	101	2.89	0.77		
전체	236	3.02	0.81		

* $p < .05$

와 일치한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200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그 특성상 신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를 스트레스적 요소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청소년의 의복행동의 차이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응답자의 의복행동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두 집단 간에 의복행동에 대한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청소년 모두가 의복에 대한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1)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응답자의 자

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가정 청소년 두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육영숙, 2008; 김아날리아 외, 2006, 박은희,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있어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정신적 안정성이 높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적 사고경향이 있음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도 주관적,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장선철, 송미현(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정 외(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2)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특성과의 인과관계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응답자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특성의 인과관계를 알아보

<표 7>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의복행동

구분	의복행동					
	N	평균	표준편차	t	p	
의복 관심	다문화가정	135	2.85	0.85	2.599	0.867
	한국가정	101	2.87	0.96		
	전체	236	2.86	0.90		
사회적 승인성	다문화가정	135	2.87	0.84	1.404	0.394
	한국가정	101	2.96	0.79		
	전체	236	2.91	0.82		
의복 동조	다문화가정	135	2.30	0.88	0.463	0.724
	한국가정	101	2.26	0.96		
	전체	236	2.28	0.91		

<표 8> 청소년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 변수	독립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 설명력	표준화 계수	계수의 유의성	
			F	p			t	p
다문화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49.582***	0.000	0.272	0.521	7.041***	0.000
한국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62.570***	0.000	0.387	0.622	7.910***	0.000

***p<.001.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신체만족도가 의복관심, 사회적승인의 의복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가정 청소년은 신체만족도가 사회적승인의 의복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의복동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승인의 의복행동을 많이 하고, 한국가정의 청소년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시와 타인위주의 행동은 많이 하나 의복동조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두 집단 모두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관심을 가지고 개성적이며 과시하려는 의복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의 변인이 사회적승인의 의복착용에 대해 가장 높으며, 의복동조에 대하여 가장 낮았다는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와 주변관계만족도, 의복행동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 변인들의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청소년은 한국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p<0.001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체만족도는 p<.05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사회적승인의 의복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한국가정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사회적승인의 의복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의복동조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유의

<표 9> 청소년응답자의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요인)	분석의 유의성		모형설명력	표준화계수	계수의 유의성	
			F	p			t	p
다문화	의복관심	신체만족도	11.554***	0.001	0.080	0.283	3.399***	0.001
	사회적승인		22.175***	0.000	0.142	0.378	4.709***	0.000
	의복동조		2.220	0.139	0.016	0.128	1.490	0.139
한국	의복관심	신체만족도	0.564	0.454	0.006	0.075	0.751	0.454
	사회적승인		4.856*	0.030	0.047	0.216	2.204*	0.030
	의복동조		4.867*	0.030	0.047	-0.216	-2.206*	0.030

*p<.05, ***p<.001.

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신체만족도로 이어져 신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를 스트레스적 요소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만족하는 긍정적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 모두에게서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시와 타인위주의 사회적 승인을 받기위한 의복행동 변인은 높게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가정 청소년은 개성적인 의복행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특성 변인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 있어 다문화적 의류시장으로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의복행동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그에 맞는 청소년의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의류시장에서의 그 영향력도 증대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은 문화적인 특성이 다양하므로, 그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광고와 판매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의 차이와 이에 따른 의복행동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의류산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그 의의를 두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발전된 다문화적 의류시장으로 변화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 (2009).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와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5(4), 343-349.
- 강경자, 서영숙. (1992).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의 동조 및 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

- 회지*, 16(4), 431-441.
- 강혜원. (1999). *의상사회심리학(개정판)*. 서울 : 교문사.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설,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복식*, 20(4), 667-681.
- 권재일, 서덕희, 서현정, 이태주, 조용환, 한건수, 한경구, 한상준, 황병하. (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 유탄 역음)*. 파주 : 동녘.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흔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희화, 김경연. (1996). 한국 아동의 자아 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5), 1-12.
- 김민정. (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 문화인류학*, 41(1), 51-89.
- 김민정, 이경진, 윤숙경, 김석주, 정아인, 황재우, 성영훈, 류인균. (2004). 여대생의 외모에 대하여 타인 평가와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의학*, 13(1,2), 32-36.
- 김순분. (2009). 중국 유학생의 의복 구매실태와 레이블에 대한 인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6), 887-895.
-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 (2006). 남녀 프리틴 세대의 외모관리행동영향 요인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 회지*, 30(11), 1538-1549.
- 김지영, 김준호. (2006). 여자고등학생의 사회적 일탈과 의복관심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일탈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119-128.
- 김지혜.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 이영환. (1999). 정서발달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1-20.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60.

- 맹리선, 채진미, 오경화. (2009). 청소년의 의복색 선호가 자기표현욕구와 패션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77-1086.
- 박은희. (2008). 초등학생 5~6학년의 주관적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호과학논집*, 20(1), 1-9.
- 박은주. (2006). 아주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태와 생점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7(4), 49-85.
- 백미숙.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 이미숙.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2), 97-110.
- 심우업.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2-47.
- 유지현. (2009).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태도 연구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한국거주기간 별-.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153-168.
- 육영숙. (2008). 여대생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105-115.
- 이명희. (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 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 143-158.
-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 이미숙. (2009).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사회적 자아 개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3), 433-443.
- 이선경, 정준교. (2003). 창의성, 개성, 동조성에 따른 고교생의 의복행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9), 1-16.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 교문사.
- 이현옥, 구양숙. (2009).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 관심,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271-277.
- 임종욱.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철, 송미현. (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115-133.
- 전대근, 김세희. (2010). 친구에 대한 청소년의 패션브랜드 동조에 관한 연구 -위험지각, 자아존중감,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9/10), 1434-1444.
- 전대근, 이은영. (2006). 준거집단이 청소년의 패션브랜드 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4), 575-587.
- 전용민, 이명희. (2005).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와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9(9·10), 1219-1229.
- 정미실, 강혜원. (1991). 정보적 영향에 의한 의복동조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10.
- 최성환, 이산호, 전영준, 이춘복, 박재영, 강진구, 류찬열, 윤재희, 이면현, 김휘택, 박찬영. (2009). *다문화의 이해*.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 콘텐츠연구사업단 엮음, 서울: 경진문화.
- 최수빈, 조우현(2003) 서울. 인천 중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선호 스타일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구매행동.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99-110.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한진수. (2005). 아주노동자 자녀교육을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활용. *한국교육개발*, 32(1), 74-78.
- 한상숙, 김경미.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37-44.
- 행정안전부. (2009).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Branden, N. (1990). *What is the self-estee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lf-esteem, 1st, Asker Oslo, Norway, August 9.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25783)
- Cash, T. F., & Aprusinsky, T. (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The Guilford Pres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

- esteem. Sanfrancisco : W. H. Freeman.
- Horn, M. J., & Gure, L. M. (1988). *The Second Skin*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서울: 까치. (원서출판 1981).
- Martiniello, M. (2002). Sortir des ghettos cultures (윤진 역). 서울; 한울. (원서출판 199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r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